



발기 유발제

- 약물 투입 부작용 많다 -

사업을 하는 50대 초반의 L씨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친구와 같이 찾아왔다. 당뇨병 증상이 있는 친구에게 우연히 발기 유발제를 얻어 지난밤에 주사를 했는데 10시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아 황급히 찾아왔다는 것이다.

80년대에 파파베린과 같은 여러 가지 발기 유발제들이 개발되어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발기부전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주사약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음경에 주사하는 용량은 일반적인 정맥주사나 근육주사에 비해 극히 소량이다.

예를 들면,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 내 동맥팽창을 위해 별 부작용 없이 3시간마다 파파베린 1백 20mg을 정맥에 주사한다. 그러나 음경에 주사하는 양은 일반적인

로 하루에 30mg 이하이다. 프로스타글란딘도 동맥 팽창을 위해 신생아에게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발기를 위한 목적으로는 극히 소량이 사용된다. 펜롤라민 역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혈압이 낮아지지만 음경 내 사용량은 0.5mg~1mg이므로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발기유발 주사약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주 가는 바늘을 사용하긴 하지만 주사한 부위에 작은 멍이나 혈종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며칠 안에 흡수되어 없어지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부작용은 약물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통증이나 지속 발기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 개개인에게 적당한 약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앞서 얘기한 L씨처럼 우연히 약을 구해 자기 마음대로 주사하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발기 유발제를 써서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지속 발기증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12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음경의 발기 조직인 해면체가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때로는 뇌혈전증을 일으켜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지속 발기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지만 효과가 약하고 통증이 가끔 나타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약을 혼합한 '트라이믹스'가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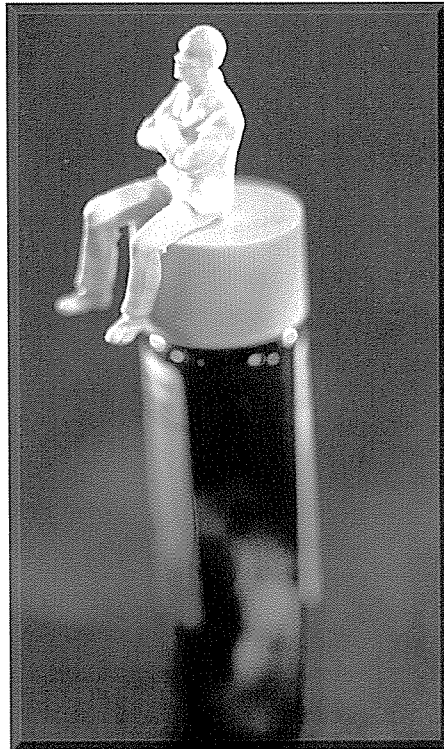
과거에 많이 쓰이던 파파베린과 펜롤라민은 한

가지만 쓸 경우 3~5년이 지나면 음경에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알려졌다. 그 뒤 미국에서는 그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아주 드물게는 음경 안쪽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주사 위치에 프라그가 생길 수도 있다.

흔히 페이로니씨병의 흉터나 프라그가 발기 유발제 주사의 부작용으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페이로니씨병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인데 발기가 약해지고 통증을 수반하며, 음경의 모양이 변화하는 이상만곡, 음경 경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음경이 발기한 상태에서 수축하는 기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음경이 짧아질 뿐 아니라 발기의 단단함도 줄어든다.

미묘한 것은 페이로니씨병인 경우,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발기력 저하이고 통증이나 이상만곡은 6개월쯤 지나서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환자가 주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음경에 이상만곡 현상이 나타나면 그는 약물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페이로니씨병이 진행중인 것이다. 따라서 음경의 흉터나 섬유증이 생기면 발기 유발제 탓일 수도 있으나 대개는 페이로니씨병의 증상이다.

새로 나온 '트라이믹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프로스타글란딘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발기부전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에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발기 속도가 느리거나, 완전 발기가 안되거나, 발기를 하려면 많은 자극이 필요하거나, 새벽에 발기가 잘 안 된다면 발기력이 꾸준히 나 빠지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고 음경기능의 노화를 멈추게 하려면 조기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치료에 들어가서도 복합 도플러 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야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고, 주사 용량도 정확히 조절할 수가 있다. 발기 유발제 주사 용량도 개인 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L

씨처럼 친구의 약을 빌려서 주사하는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주사약들이 마치 코카인과 같은 마약처럼 남용될 위험성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다. 발기력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술 마시고 발기력에 장애를 느낀 나머지 친구의 주사약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신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